

# 재난 관련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연구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on the Roles of Public Library Related to Disasters

이 연 옥 (Yeon-Ok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

**요약:** 본 연구는 재난과 관련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재난 관련 공공도서관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들의 인지도는 과반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관련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며, 역할의 유의성에 대한 평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서들은 재난 관련 도서관의 세부 역할 중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재난 지원 기관과의 협력,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주민의 재난 경험 아카이빙, 아웃리치서비스, 지역사회 지원 등의 순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셋째, 사서들은 재난으로 스트레스 및 상처를 받은 지역주민을 위해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서관역할의 필요성과 유의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넷째, 사서직급과 소속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개별 도서관을 중심으로 재난과 관련한 공공도서관 역할 개발 및 이행을 위한 주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재난, 정보서비스,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역할, 사서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on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related to disasters.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for librarian. The survey is composed of 34 questions, including the questions asking librarians' perceptions about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related to the disasters derived from literature review.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librarians were not well aware of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related to disasters, they generally supported the necessity of the role and evaluated the benefits of the role highly. Second, librarian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the library in the following order of importance: psycho-emotional support for citizens who have experienced disasters; cooperation with disaster support agencies; disaster shelter;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archiving disaster experiences of residents; outreach services; community support. Third, librarians recognized that psycho-emotional support services for residents suffering from disasters were the most necessary and beneficial to residents. Fourth, librarians' perceptions of disaster-related library roles changed based on their position and the type of library they belong to.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research discussed and suggested what roles each public library should play and what services it should plan, and how it should be implemented during the disaster.

**KEYWORDS:** Disaster, Information Services, Library Administration, Roles of Public Library, Librarians' Perception

\* 부산대학교 BK21 생활밀착형정보서비스 전문인력교육연구단 연수연구원  
(idisfeel@hanmail.net / ISNI 0000 0004 6487 2027)

• 논문접수: 2022년 8월 23일 • 최초심사: 2022년 8월 24일 • 게재확정: 2022년 9월 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215-240,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215>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론

Shera(1970)는 『Sociological Foundations of Librarianship』이라는 책에서 도서관은 사회적 요구와 연동되어 기능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통한 개인의 향상과 사회의 개선을 도서관의 주요한 목표이자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세라의 이러한 언급은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상황이나 문제 등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도서관의 존재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라가 제시한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역할'은 코로나 19 감염병이라는 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을 설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지진,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회재난이 여기에 해당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2). 이러한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생명, 재산, 경제, 생활시설, 주거환경 등 물리적 경제적 손실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준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기에 지역사회와 주민에게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 문제 상황에서는 개별 시민들의 자신과 가족의 보호를 비롯한 재난대처와 관련한 정보요구가 강도 높게 발생한다. 그렇기에 재난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며, 재난과 관련한 시민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위기상황인 재난이 발생할 때 공공도서관은 재난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재난과 관련한 지역사회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이를 통해 사회적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 등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재난과 관련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논의는 국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활발한 편이다. 주로 홍수와 태풍, 화재, 지진 등의 재난 상황에서 도서관 시설과 장서 보호, 직원과 이용자의 안전 등 도서관운영과 관리방안에 주안점을 둔 연구로 시작하여,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에 주목하여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도서관역할을 조명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Alajmi, 2016; Bishop & Veil, 2013; Echezona, 2007; Featherstone, Lyon, & Ruffin, 2008; Harris, Wathen, & Chan, 2005; Jaeger et al., 2006; Wang & Lund, 2020; Zach, 2011; Zach & Mcknight, 2010).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감염병 상황에서 도서관의 운영방안을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김성원, 2020;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노영희, 장로사, 2020; 박태연, 오효정, 2020),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이거나 지역사회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를 조명하고 있다(노영희, 노지윤,

2020; 배경재, 정다희, 2021). 국내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도서관 역할과 서비스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초기단계라 관련 논의를 축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재난 대응과 관련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지역사회 재난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사서의 인지여부를 비롯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난상황과 관련한 지역민의 요구를 살피고 이러한 요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사서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II.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

재난 대응과 관련한 국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헌은 홍수와 태풍, 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난 상황에서 도서관시설과 장서의 보호, 직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재난 관리 계획의 개발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Green & Teper, 2006; Khan, 2012; Stewart, 2014; Wall, 2006). 주로 재난 시 도서관장서 및 시설이 물리적인 훼손으로 위협받는 위험의 상황에서 도서관장서와 시설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등 도서관 측면에서의 운영과 관리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도서관 내부 측면의 재난 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에 주목하여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는 도서관역할을 조명하는 연구가 생산되고 있다. 재난에 처한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조명은 2004년과 2005년 미국을 중심으로 걸프 연안을 따라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특정 지역의 재해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개별도서관의 일화와 경험을 소개하며 그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이 수행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Bishop & Veil, 2013; Featherstone, Lyon, & Ruffin, 2008; Jaeger et al., 2006).

먼저, Jaeger et al.(2006)은 2004년과 2005년 미국의 걸프 연안지역에 허리케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 공공도서관이 수행한 역할을 탐구하였다. 걸프 연안(알라바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사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허리케인 발생 당시의 도서관활동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회복과 재난복구를 지원하는 도서관역할을 밝혀냈다. 그 결과, 재난 상황에서 도서관이 이재민을 위해 물과 식사 등의 물리적인 지원과 인터넷과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등의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로 기능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잃어버린 가족이나 친구를 찾고, 정부지원과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작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과 극복을 위한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대피소로 찾아가 이재민들에게 도서관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동을 위한 스토리타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재난 관련

자원활동가를 비롯한 정부기관 종사자들의 회의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지원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재난을 직접 경험한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연구도서관, 특수도서관, 병원도서관 대상으로 재난 시의 활동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Featherstone과 Lyon, Ruffin(2008)은 테러, 지진, 전염병, 화재,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의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응한 사서 23명의 경험을 분석하여 지역의 재난 관리에서 도서관이 수행한 역할과 서비스를 8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즉 지역사회 재난관련 기관의 활동을 돕는 기관지원자로서의 역할, 재난 시기의 도서관장서 보호 및 유지와 접근을 보장하는 수집관리자 역할, 재난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배포하는 정보배포자 역할, 재난상황에서 도서관 내부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계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피난민 대피소이자, 도서관인터넷을 이용하며 가족을 찾고, 재난 지원 및 보험을 신청하는 등 재난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과 재난 관련 사회서비스기관과 협력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파트너 역할을 확인했다. 이외 도서관의 재난관리를 위한 사서교육과 재난을 입은 인근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Bishop과 Veil(2013)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토네이도를 경험한 4개 주(알라바마, 인디애나, 미주리, 켄터키)의 사서 2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 재난 회복을 위해 공공도서관이 수행한 역할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은 피해 주민을 위한 보호소 및 대피소로서 사람을 찾고 만나고, 분실물을 맡기고 찾는 등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장소로 기능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재난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및 NGO 대상으로 인터넷, 팩스, 노트북 등 도서관의 시설 및 기술 자원에 대한 지원과 회의 및 사무를 위한 공간적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도서관의 경우 시민들이 위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원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위기정보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일부 도서관은 지역사회 재난 및 위기 관련 기관과 협력 대응한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재난과 관련한 도서관의 주된 역할은 이재민을 위한 보호소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자연재난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사회분쟁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 연구가 있다. Echezona(2007)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종 및 민족 간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이 관련 세미나를 조직하고 토론을 뒷받침하는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와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분쟁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재난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실제 지원 사례로는 2014년 미국 미조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인 '퍼거슨사태'<sup>1)</sup>를 들 수 있다. Alajmi(2016)는 미주리주 퍼거슨시립공공도서관의

1) 이는 2014년 8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소도시 퍼거슨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흑인이 백인경관의 무차별 총격에 사망했음에도 백인경관이 불기소로 처리되자 이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그 결과 지역의 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폐쇄되었다.

‘퍼거슨사태’에 대한 대응을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상황에서 퍼거슨시립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시위와 폭동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을 비롯한 학교가 폐쇄된 상황에서 도서관은 교사,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여 200여명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시위와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자영업자의 복구와 지원을 위한 보험청구 및 대출 관련 설명회 개최와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였다. 또한 도서관은 시위와 폭동에 따른 시민 불안과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시민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도움이 되는 도서나 워크시트지, 정신건강에 대한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목록 등을 담은 힐링 키트를 만들어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퍼거슨사태의 배경과 원인, 경과, 해결방안 등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정신건강 관련 정보원에 대한 문의에 부응하는 참고서비스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재난에 처한 시민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정서적인 지원활동은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도서관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정신적 충격, 불안, 공포, 고통, 스트레스 등의 완화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욕공공도서관이나 프라버던스공공도서관의 경우 테러 직후 시민들에게 비극적 상황의 대처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추천도서목록 형태로 제공하였으며, 정신건강전문직 초청 강연회나 불안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글쓰기프로그램과 낭독회, 북토크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Hayes, 2002; LeBoeuf, 2006).

이같이 지역의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한 결과, 도서관은 2011년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으로부터 재난과 관련한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재난발생 동안 지역사회 복구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Bishop & Veil, 2013). 이는 시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지역사회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Zach, 2011).

한편, 재난상황에서의 역할이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과 장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등 전통적 역할이 주를 이룬다고 비판하며 재난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정보요구에 주목하고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할만한 정보제공자로 기능해왔음을 거론하며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시민 건강에 위기를 일으키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전염병 대응과 건강에 대한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역할을 고찰한 연구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arris와 Wathen, Chan의 연구(2005)와 Zach의 연구(2011)를 들 수 있다.

먼저, Harris와 Wathen, Chan(2005)은 200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SARS)가 발생했을 당시 시민의 관련 정보요구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 정도를

고찰하였다. 지역사회의 위기 초기 단계에서 공공도서관이 어느 정도 적시에 정확하고, 유용하며,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전화 참고질의에 대한 대응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건강의 위기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전염병 및 건강 관련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2)</sup>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새로운 전염병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참고정보서비스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역할 수행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Zach(2011)은 2009년 돼지독감으로 알려진 H1N1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던 재난 상황에서 수행된 역할을 공공도서관 웹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 50개 대도시 공공도서관 중에서 1/3 미만만이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보제공 역할이 도서관업무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을 보고하였다.<sup>3)</sup> 이에 연구자는 전염병의 위기 상황에서 도서관이 장서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인식하는 반면 재난과 관련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이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특별한 요구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재난과 관련한 정보제공의 역할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과 더불어 재조명되고 있다. Wang과 Lund(2020)는 미국 80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4일부터 4월 12일 까지의 기간 동안 도서관의 공지 및 홈페이지를 토대로 도서관의 역할 및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서관이 폐쇄하였으며,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하거나, 전자자원활용의 권장이나 가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도서관운영에 중점을 두어 대응하였고, 일부 도서관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 건강자원에 대한 링크 제공 등 코로나 19 전염병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2020)이 제시한 코로나 19에 대응한 모범 도서관 사례를 보면 전염병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역할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도서관 공간을 지역 위기 대응기관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주차장을 개방하여 노숙자의 차량거주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도서관공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일부 도서관은 마스크 대용 안면보호대용 머리띠를 제작하여 의료종사자 등에게 배포하거나 도서반납함 및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관련 주요 정보원 안내와

2) 사스는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는데 질병이 확산되던 초기 단계에 온타리오주의 56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3개관만이 사스와 관련한 고객의 질문에 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사스가 발병된 지 2주 후 도서관웹사이트를 통한 사스 관련 정보 링크 및 안내를 하였고, 이후 시민들의 사스 관련 질문이 쇄도하게 되면서 지역의 공공 건강관련 기관 및 정부 웹사이트(Health Canada), 신문잡지, 인터넷 정보, 지역건강단체, 도서관 자료 등 다양한 정보원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들 1/3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보건사회복지부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정보원의 링크를 제공하거나 스마트폰앱이나 SNS를 활용하여 정보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의 감염완화대책, 시민의 건강관리지침, 코로나로 인한 실업 및 세금감면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지역 의료인과 주민의 코로나 19 대처 경험을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활동을 한 도서관 사례도 보고되었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재난대응과 관련한 도서관역할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화재, 지진,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도서관시설과 장서의 보존과 관리, 이용자와 직원의 안전의 측면에서 대응방안이나 안전관리메뉴얼을 개발하여 제시한 연구가 있다 (김포옥, 2006; 이상백, 2019; 이정수 외, 2016).

또한, 국내 문헌정보학의 재난 관련 연구는 코로나 19 확산을 기점으로 일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감염병 상황에서 도서관의 운영방안을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성원, 2020;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노영희, 장로사, 2020; 박태연, 오효정, 2020). 이들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도서관 휴관과 서비스 제한 등의 국내외 도서관계 대응과 현황을 분석하고 도서관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거나(김성원, 2020), 공공도서관의 단계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노영희, 장로사, 2020).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온라인서비스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박태연, 오효정, 2020). 관련 연구들이 대체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이 폐관, 부분적 개관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제한이 발생하였기에 재난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침개발, 온라인서비스 등 도서관 내부의 운영 및 대응 방안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도서관측면에서 관리와 운영방안의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에 대한 도서관의 확대된 역할과 서비스를 고찰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배경재와 정다희(2021)는 공공도서관의 재난 대응을 위한 국외 매뉴얼을 분석하여 감염병 환경에서의 도서관역할과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이 재난을 경험한 주민들의 스트레스 치유나 구직 지원 등 지역사회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역할을 확장하고, 도서관의 언택트시스템과 오픈형 스페이스를 강화하며,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경험을 아카이브로 구현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노영희와 노지윤(2020)은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사회적 대피시설로서의 도서관의 공간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대피시설로서의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에 비해,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국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난 대응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주요 역할을 정리해보면 도서관측면에서의 운영과 관리 방안으로서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는 도서관역할과 서비스방안으로서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이재민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재난 대피소로 찾아가는 아웃리치서비스, 재난이 발생한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난 경험 아카이빙, 재난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할의 세부내용과 관련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

유형	내용	관련 연구
(1)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계획의 수립	-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계획 - 도서관 시설과 장서의 보호 - 직원과 이용자의 안전 - 재난관리를 위한 사서교육	Wall(2006) ; Green, Teper(2006) ; Featherstone, Lyon, Ruffin(2008) ; Khan(2012) ; Stewart(2014) ; 김포옥(2006) ; 이정수 외(2016) ; 이상백(2019) ; 김성원(2020) ; 노영희, 장로사(2020) ;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2020) ; 박태연, 오효정(2020) ; 배경재, 정다희(2021)
(2)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 이재민 대피를 위한 공간 지원 - 이재민의 음식 및 구호물자 배포 - 도서관시설 및 기자재(컴퓨터, 팩스, 복사기 등)지원 - 전화, 인터넷 접근 지원 - 이재민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Jaeger et al. (2006) ; Featherstone, Lyon, Ruffin(2008) ; Bishop, Veil(2013) ; Alajmi(2016) ; FEMA(2020) ; 노영희, 노지윤(2020)
(3)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 재난관련 정보 제공 - 재난 관련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 링크 - 재난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 안내 - 재난 관련 도서 및 논문 안내 - 재난 정보 워크샵 및 세미나	Harris, Wathen, Chan(2005) ; Echezona(2007) ; Featherstone, Lyon, Ruffin(2008) ; Zach, Mcknight (2010) ; Zach(2011) ; Bishop, Veil(2013) ; Alajmi(2016) ; Wang, Lund(2020) ; FEMA(2020)
(4) 이재민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 및 심리정서적 도움이 되는 도서와 자료 안내 -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 및 심리정서적 도움이 되는 도서낭독, 북토크, 글쓰기 등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전문직 초청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원 안내	Hayes(2002) ; LeBoeuf(2006) ; Alajmi(2016) ; 배경재, 정다희(2021)
(5) 재난 대피소로 찾아가는 아웃리치서비스	- 재난 대피소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비롯한 도서대출서비스 - 재난 대피소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스토리타임 등) 운영	Jaeger et al.(2006)
(6) 재난이 발생한 지역사회 지원	- 재난 관련 지원 기관과 인력에 대한 지원(업무 및 회의 공간 및 시설, 물품 등) - 이재민 가족 및 실종자 찾기 지원 - 이재민 구조와 보호, 지원, 보험청구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서류작성 지원 - 이재민 구직 지원 - 자원활동가 모임 지원 - 재난을 입은 도서관 지원	Jaeger et al.(2006) ; Featherstone, Lyon, Ruffin(2008) ; Bishop, Veil(2013) ; Alajmi(2016) ; FEMA(2020) ; 배경재, 정다희(2021)
(7) 지역사회 및 주민의 재난 경험 아카이빙	-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난 경험을 아카이빙	FEMA(2020) ; 배경재, 정다희(2021)
(8) 재난 관련 기관과의 협력	- 재난지원 관련 정부기관 및 NGO와의 협력	Jaeger et al.(2006) ; Featherstone, Lyon, Ruffin(2008) ; Zach(2011) ; Bishop, Veil(2013) ; FEMA(2020)

###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재난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국내 사서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1. 설문내용과 문항구성

설문내용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재난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유형, (1)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계획의 수립, (2)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3)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4) 이재민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5) 재난대피소로 찾아가는 아웃리치서비스, (6) 재난이 발생한 지역사회 지원, (7)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난 경험 아카이빙, (8) 재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을 크게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계획에 대한 사서의 인식,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 수행 방안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영역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답변하도록 설계되었다. 설문은 공공도서관 관장 1인, 중간관리자 1인, 평사서 1인 대상의 예비조사를 통한 수정 보완을 거쳐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완성되었다. 최종 <표 2>와 같이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계획에 대한 인식 3문항,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 인식 24문항,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 수행 방안 1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으로 총 34문항이 구성되었다.

<표 2> 설문지 내용 구성

영역	항목	문항수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계획에 대한 인식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계획 인지	2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1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 역할 인식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3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7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서비스	6
	재난대피소로 찾아가는 아웃리치서비스	2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2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난 경험 아카이빙	2
	재난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2
	도서관역할 수행 방안을 위한 방안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1
	연령	1
	사서경력	1
	사서직급	1
	소속 도서관의 운영유형	1
	소속 도서관의 소재지	1
계		34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사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선정하였다. 먼저, 지역별 공공도서관협의회와 사서협회에 접촉한 뒤 온라인 설문 링크를 메일로 발송하여 협의회 산하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안내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사서의 설문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는 연구자가 지역 내 개별 도서관의 사서에게 직접 전화하여 설문을 요청하였고 조사를 수락한 사서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를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2년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총 249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 172명의 사서로부터 설문지 회신을 받았다. 회신된 설문지 172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인 사서의 일반적 배경은 <표 3>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28명(16.5%), 여성 144명(83.7%) 이 응답하였으며, 연령은 40대와 50대가 각각 55명(32%), 30대 42명(24.4%), 20대 18명(10.5%), 60대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20년 이상이 48명(27.9%), 10년 이상~20년 미만이 47명(27.3%), 5년 미만이 46명(26.7%), 5년 이상~10년 미만이 31명(18%) 순으로 확인된다. 직급별로는 평사서가 111명(67.7%)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중간관리자가 31명(18.0%), 관장이 30명(17.4%) 참여하였다. 소속기관별 참여현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사서가 78명(45.3%),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가 48명(27.9%), 지자체 위탁도서관 소속의 사서가 46명(26.7%)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권이 68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 57명(33.1%), 충청전라권 37명(21.5%), 강원제주권 10명(5.8%)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사서의 일반적 배경

	구분	N	%
성별	남	28	16.5
	여	144	83.7
	계	172	100.0
연령	20대	18	10.5
	30대	42	24.4
	40대	55	32.0
	50대	55	32.0
	60대	2	1.2
	계	172	100.0
경력	5년 미만	46	26.7
	5년 이상~10년 미만	31	18.0
	10년 이상~20년 미만	47	27.3
	20년 이상	48	27.9
	계	172	100.0

구분		N	%
직급	평사서	111	64.5
	중간관리자	31	18.0
	관장	30	17.4
	계	172	100.0
소속 기관	교육청	78	45.3
	지자체 직영	48	27.9
	지자체 위탁	46	26.7
	계	172	100.0
지역	서울경기권	68	39.5
	충청전라권	37	21.5
	경상권	57	33.1
	강원제주권	10	5.8
	계	172	100.0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인지여부와 도서관역할 수행 방안에 대한 사서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인지여부가 사서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수행하였고, 도서관역할에 대한 인식수준이 사서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의 계획 및 지침에 대한 인식

먼저,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재난 대응과 관련한 도서관 내부의 계획이나 지침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이에 대한 사서의 인지여부를 알아보았다(〈표 4〉 참조).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72명 중 46.5%가 계획 및 지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계획 및 지침의 존재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3.7%를 차지하고 있어 재난 관련한 도서관계획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 계획 및 지침에 대한 인지도

구분	예	아니오	모른다
내가 근무하는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획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80 (46.5)	34 (19.8)	58 (33.7)
계	172(100.0%)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사서의 직급과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5〉 참조). 이를 위해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먼저, 직급에 따라 재난 관련 도서관계획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27.941, p<.001$ ). 평사서의 46.8%가 계획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에 중간관리자는 19.4%가 모른다고 하였으며, 관장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한 케이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직급에 따라 도서관의 재난대응계획에 대한 인지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서가 소속된 도서관의 운영유형이 교육청, 지자체 직영, 지자체 위탁이나에 따라 재난 대응 계획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20.182, p<.001$ ). 교육청 소속 사서(46.2%)가 지자체 직영(33.3%)과 지자체 위탁(13.0%) 운영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보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 계획 및 지침에 대한 인지도 차이

(N=172)

구분		예	아니오	모른다	계	$\chi^2(p)$
직급	평사서	44(39.6)	15(13.5)	52(46.8)	111(100)	27.941(0.000)***
	중간관리자	16(51.6)	9(29.0)	6(19.4)	31(100)	
	관장	20(66.7)	10(33.3)	0(0.0)	30(100)	
소속 기관	교육청	35(44.9)	7(9.0)	36(46.2)	78(100)	20.182(0.000)***
	지자체직영	18(37.5)	14(29.2)	16(33.3)	48(100)	
	지자체위탁	27(58.7)	13(28.3)	6(13.0)	46(100)	

\* $p<.05$ , \*\* $p<.01$ , \*\*\* $p<.001$

다음으로, 소속 도서관에 재난 대응 계획이나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80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계획과 지침의 세부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았다(〈표 6〉 참조). 전체 응답 중에서 '직원 및 이용자 안전관리'가 33.3%로 가장 많이 거론되었으며, '재난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 24.7%, '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보호와 관리' 19.8%, '도서관 인력 활용' 14% 순으로 언급되었다. '이용자서비스 계획 및 제공방안'에 대한 언급은 8.2%(17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재난 대응이 도서관 내부의 재난 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재난과 관련한 이용자서비스 영역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재난 대응 도서관계획 및 지침 내용 (복수응답)

구분	N	%
도서관 시설 및 장서보호와 관리	41	19.8
직원 및 이용자 안전관리	69	33.3
도서관 인력 활용	29	14.0
이용자서비스 계획 및 제공방안	17	8.2
재난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	51	24.7
계	207	100

이에 더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 대응을 위해 도서관의 ‘이용자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사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표 7〉 참조). 그 결과 평균이 3.77로 나타났다으며, 설문에 참여한 사서의 69.1%(‘동의한다’ 45.3%, ‘매우 동의한다’ 23.8%)가 도서관이 재난 시 이용자서비스 지침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서들은 대체로 지역사회 재난 시 도서관 내부의 안전 및 관리 뿐 아니라 이용자서비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표 7〉 재난 시 도서관의 ‘이용자서비스 계획 수립’의 필요

구분	전혀 동의 안한다	동의 안한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M	SD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0.6%)	25 (14.5%)	27 (15.7%)	78 (45.3%)	41 (23.8%)	3.77	0.99
계	172(100.0%)						

## 2. 재난 대응과 관련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재난 대응과 관련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를 비롯하여,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먼저, 공공도서관의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지여부를 파악해본 결과, 지역사회 재난에 처한 이재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에 대해서는 40.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8〉 참조). 재난 관련 지역주민의 정보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해서는 48.3%의 사서가 알고 있으며, 재난을 경험한 주민들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완화하고 심리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도서관서비스와 역할에 대하여도 45.9%의 사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 역할과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서의 비율이 과반에 못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서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표 8〉 재난 관련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

구분	예	아니오	계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재난에 처한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공간과 시설이 활용되는 사례나 관련 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	69(40.1)	103(59.9)	172(100%)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재난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정보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	83(48.3)	89(51.7)	
이재민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공공도서관이 재난을 경험한 주민들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완화하고 심리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도서관서비스와 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	79(45.9)	93(54.1)	

이에 더해, 재난 대응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이해도가 사서의 직급과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이를 위해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역할’, ‘이재민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역할’에 대한 사서들의 이해 정도는 세부 집단별로 차이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참조). 우선, 사서의 직급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관련 역할에 대한 관장의 인지도에 비해 중간관리자와 평사서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장의 80% 이상이 관련 서비스를 알고 있는 반면에 평사서와 중간관리자의 경우는 30~40% 정도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의 소속 기관 유형에 따라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가 교육청 소속 사서 및 지자체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들보다 관련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인지도 차이

(N=172)

구분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재난 대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직급	평사서	34(30.6)	77(69.4)	48(43.2)	63(56.8)	38(34.2)	73(65.8)	111(100)
	중간관리자	10(32.3)	21(67.7)	10(32.3)	21(67.7)	13(41.9)	18(58.1)	31(100)
	관장	25(83.3)	5(16.7)	25(83.3)	5(16.7)	28(93.3)	2(6.7)	30(100)
	$\chi^2(p)$	28.278(0.000)***		19.077(0.000)***		33.458(0.000)***		
소속 기관	교육청	26(33.3)	52(66.7)	32(41.0)	46(59.0)	27(34.6)	51(65.4)	78(100)
	지자체직영	14(33.3)	34(70.8)	19(39.6)	29(60.4)	15(31.3)	33(68.8)	48(100)
	지자체위탁	29(63.0)	17(37.0)	32(69.6)	14(30.4)	37(80.4)	9(19.6)	46(100)
	$\chi^2(p)$	13.955(0.001)**		11.444(0.003)**		30.239(0.000)***		

\* $p<.05$ , \*\* $p<.01$ , \*\*\* $p<.001$

다음으로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 사서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 평균이

3.46으로 나타나 사서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관련 도서관의 세부 역할에 따른 사서의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재난에 처한 이재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활용되는 등 공공도서관이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 3.76으로, 70.4%의 사서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정보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은 평균 3.73으로 이 또한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보서비스의 하위 영역에 따라 동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재난과 관련한 도서관의 정보제공 역할에 대해서는 평균 3.80으로 응답자의 72.1%가 그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재난 관련 도서 및 논문 등의 정보자료 안내에 대해서는 73.9%의 동의와 평균 3.81로 확인되어 정보서비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재난 관련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 안내 서비스의 필요성은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고, 재난 관련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기관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하는 활동은 평균 3.76으로 확인되어 사서들이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재난 관련 세미나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서들의 동의 정도는 평균 3.49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였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으로서 도서관이 재난을 경험한 주민들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완화하는 등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3.88로 제시된 서비스 중에서 사서들이 그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역할 중에서도 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심리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서와 자료 안내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은 4.00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사서의 77.9%가 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을 위한 심리 정서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서낭독, 북토크, 글쓰기 등)의 운영 3.95, 정신건강 전문직 초청프로그램의 운영 3.88, 정신건강 관련 주요 기관 안내가 3.70으로 확인되어, 공공도서관이 재난을 경험한 주민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며 심리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사서들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앞서 공공도서관의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역할’,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역할’에 대한 사서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는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난 발생 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난 경험을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서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균 3.68로 62.2%의 사서들이 관련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재난 대피소로 찾아가서 도서대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웃리치서비스에 대해서는 3.56, 재난지원기관 및 인력 지원 등의 지역사회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3.43으로 드러나 다른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

관련 공공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및 지원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72.4%의 사서들이 동의하였다. 평균 3.85로 사서들은 재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3.88) > 재난 관련 기관과의 협력(3.85) >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3.76) >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3.73) > 주민의 재난 경험 아카이빙(3.68) > 아웃리치서비스(3.56) > 지역사회 지원(3.43) 순으로 그 필요성을 평가하였다.

〈표 10〉 재난 관련 세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의 인식

(N=172)

구분		전혀 동의 안한다	동의 안한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M	SD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4 (2.3)	21 (12.2)	26 (15.1)	81 (47.1)	40 (23.3)	<b>3.76</b>	1.01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정보 제공	3 (1.7)	20 (11.6)	25 (14.5)	83 (48.3)	41 (23.8)	3.80	0.98
	도서 및 논문 등 자료 안내	3 (1.7)	20 (11.6)	22 (12.8)	88 (51.2)	39 (22.7)	3.81	0.97
	주요 웹사이트 안내	1 (0.6)	22 (12.8)	28 (16.3)	81 (47.1)	40 (23.3)	3.79	0.96
	주요 기관안내	2 (1.2)	22 (12.8)	32 (18.6)	75 (43.6)	41 (23.8)	3.76	0.99
	세미나 및 프로그램 운영	3 (1.7)	30 (17.4)	43 (25.0)	71 (41.3)	25 (14.5)	3.49	0.99
	평균						<b>3.73</b>	0.88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관련 자료 안내	1 (0.6)	2 (1.2)	35 (20.3)	91 (52.9)	43 (25.0)	4.00	0.74
	관련 프로그램 (도서낭독, 북토크, 글쓰기 등) 운영	2 (1.2)	6 (3.5)	32 (18.6)	90 (52.3)	42 (24.4)	3.95	0.82
	정신건강전문직 초청 프로그램 운영	2 (1.2)	8 (4.7)	37 (21.5)	86 (50.0)	39 (22.7)	3.88	0.85
	관련 기관 안내	3 (1.7)	15 (8.7)	49 (28.5)	68 (39.5)	37 (21.5)	3.70	0.96
	평균						<b>3.88</b>	0.75
아웃리치서비스		5 (2.9)	19 (11.0)	51 (29.7)	67 (39.0)	30 (17.4)	<b>3.56</b>	1.00
지역사회 지원		12 (7.0)	19 (11.0)	52 (30.2)	61 (35.5)	28 (16.3)	<b>3.43</b>	1.10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난 경험 아카이빙		3 (1.7)	14 (8.1)	48 (27.9)	77 (44.8)	30 (17.4)	<b>3.68</b>	0.91
재난 관련 기관과의 협력		3 (1.7)	9 (5.2)	35 (20.3)	88 (51.2)	37 (21.5)	<b>3.85</b>	0.87
전체 평균							<b>3.46</b>	0.63
계				172(100.0%)				

이어서,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의 인식이 사서의 직급별, 소속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이를 위해 세부 역할 및 서비스(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역할,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아웃리치서비스, 지역사회 지원, 재난 경험 아카이빙, 관련 기관과 협력)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배경 변인에 따라 사서의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직급 간에 도서관역할의 필요성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9.934, p<.001$ )(<표 11> 참조). 관장과 평사서 간에 그리고 관장과 중간관리자 간에 필요성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관장의 경우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의 필요성 인식은 평균점수가 3.89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중간관리자는 3.50이었으며, 평사서는 3.34로 확인되어, 관장에 비해 중간관리자와 평사서의 관련 역할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 유형별로 도서관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3.526, p<.05$ )(<표 11> 참조).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위탁(3.67), 교육청(3.42), 지자체직영(3.35) 순으로 나타나는데, 지자체 위탁 소속 사서의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평균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 직영 소속 사서는 3.35로 가장 낮아 두 기관에 소속된 사서들 간의 인식수준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표 11>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N=172)

구분	N	M	SD	F	P	사후검증결과	
직급	평사서 <sup>a</sup>	111	3.34	.628	9.934	0.000***	a, b(c) (scheffe)
	중간관리자 <sup>b</sup>	31	3.50	.628			
	관장 <sup>c</sup>	30	3.89	.470			
	계	172	3.46	.635			
소속 기관	교육청 <sup>a</sup>	78	3.42	.615	3.526	0.032*	b(c) (scheffe)
	지자체직영 <sup>b</sup>	48	3.35	.657			
	지자체위탁 <sup>c</sup>	46	3.67	.611			
	계	172	3.46	.635			

\* $p<.05$ , \*\* $p<.01$ , \*\*\* $p<.001$

### 3.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의 유익성에 대한 인식

도서관의 재난 관련 역할 수행이 지역주민의 도서관역할 인식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조사해보고자 재난관련 세부 역할의 유익성에 대해 사서가 평가해보도록 하였다(<표 12> 참조). 사서들의 기대치가 가장 높은 도서관역할은 재난을 경험한 지역주민의 심리 정서적 지원 역할로 평균이 3.85로 확인되었다. 사서들은 재난으로 스트레스나 상처를 받은 지역주민을 위해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도서관역할 인식에 가장 유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는 앞서 재난 관련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의 의견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영역이었는데, 역할 유익성에 대한 사서의 평가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와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은 3.80 동점으로 확인된다. 그 뒤를 이어서 사서들은 관련 기관과 협력(3.64), 아웃리치서비스(3.62), 재난 경험의 아카이빙(3.54) 순으로 유익성을 평가하였다. 지역사회 지원에 대해서는 3.4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표 12〉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의 유익성에 대한 인식

(N=172)

구분	전혀 동의 안한다	동의 안한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M	SD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의 유익성	4 (2.3)	24 (14.0)	19 (11.0)	80 (46.5)	45 (26.2)	3.80	1.05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의 유익성	4 (2.3)	19 (11.0)	27 (15.7)	79 (45.9)	43 (25.0)	3.80	1.01
이제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의 유익성	4 (2.3)	9 (5.2)	38 (22.1)	78 (45.3)	43 (25.0)	3.85	0.93
아웃리치서비스의 유익성	5 (2.9)	17 (11.0)	44 (29.7)	77 (39.0)	29 (17.4)	3.62	0.97
지역사회 지원의 유익성	11 (6.4)	22 (12.8)	48 (27.9)	61 (35.5)	30 (17.4)	3.44	1.11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난 경험 아카이빙의 유익성	4 (2.3)	22 (12.8)	51 (29.7)	67 (39.0)	28 (16.3)	3.54	0.98
재난관련 기관과 협력의 유익성	6 (3.5)	18 (10.5)	38 (22.1)	79 (45.9)	31 (18.0)	3.64	1.00
전체 평균						3.52	.671
계	172(100.0%)						

아울러,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의 유익성에 대한 사서들의 평가를 직급별, 소속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표 13〉 참조). 재난 관련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사서 직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9.583, p<.001$ ). 평사서(3.39)와 중간관리자(3.55)에 비해 관장(3.97)이 재난 관련 역할의 유익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서의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5$ ).

〈표 13〉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의 유익성에 대한 인식 차이

(N=172)

구분	N	M	SD	F	P	사후검증결과	
직급	평사서 <sup>a</sup>	111	3.39	.666	9.583	0.000***	a, b(c) (scheffe)
	중간관리자 <sup>b</sup>	31	3.55	.667			
	관장 <sup>c</sup>	30	3.97	.493			
	계	172	3.52	.671			
소속 기관	교육청 <sup>a</sup>	78	3.46	.632	2.961	0.054	
	지자체직영 <sup>b</sup>	48	3.42	.724			
	지자체위탁 <sup>c</sup>	46	3.72	.650			
	계	192	3.52	.671			

\* $p<.05$ , \*\* $p<.01$ , \*\*\* $p<.001$

#### 4. 도서관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사회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사서의 의견을 알아보았다(〈표 14〉 참조). 그 결과, 사서들은 재난 관련 도서관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6.6%(63명)의 사서가 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난 대응 관련 도서관역할 및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25.6%(44명)의 사서들이 거론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주요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7명(21.5%)의 사서가 응답하였다. 재난 대응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사서는 27명(15.7%)으로 가장 적었다.

〈표 14〉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분	N	%
재난 대응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의지	27	15.7
재난 대응 관련 도서관역할 및 서비스에 대한 모델 개발과 안내	44	25.6
재난 대응 관련 도서관서비스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63	36.6
재난 대응을 위한 주요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7	21.5
기타	1	0.6
계	172	100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과 관련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을 조사하여 이를 (1)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계획 수립, (2)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3)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4)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5) 재난대피소로 찾아가는 아웃리치서비스, (6) 지역사회 지원, (7) 재난 경험 아카이빙, (8)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라는 8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 재난 대응과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내부계획의 존재여부와 이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과반에 못미치는 46.5%의 사서들이 도서관의 내부계획이 있음을, 19.8%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관련 계획의 존재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33.7%로 나타나 재난 관련 도서관계획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특별히 도서관계획

에 대한 인지도에서 관장의 높은 인지도에 비해 중간관리자와 평사서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서가 소속된 도서관의 운영유형에 따라서도 인지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서들이 인지하고 있는 도서관의 재난 대응 계획에는 직원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재난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도서관시설 및 장서보호와 관리, 도서관인력 활용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도서관이 처한 위기나 사고에 대한 관리와 지침 등의 도서관내부 안전을 중심으로 다루는 반면에 재난 대응을 위한 이용자서비스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다루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서들은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도서관내부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이용자서비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었다. 코로나 19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서비스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고민과 혼란 등의 예상치 못한 경험이 서비스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낸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 경기도사서협의회, 2020).

다음으로, 지역사회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 및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공공도서관의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에 대한 사서의 인지도는 과반에 못미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사서들은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관련 서비스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사서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과 관련한 도서관의 세부 역할에 대해 사서들은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 재난 관련 기관과의 협력 >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 주민의 재난 경험 아카이빙 > 아웃리치서비스 > 지역사회 지원 순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사서들은 도서관의 재난 대응으로서 재난을 경험한 주민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완화하는 등의 심리 정서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사서들이 재난을 경험한 지역주민의 심리 정서적 지원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 현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공공도서관이 독서치료용 목록을 개발하여 안내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요구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경험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연옥, 2010).

한편,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재난에 처한 이재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활용되는 등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는 70.4%의 사서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장소제공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노영희, 노지윤, 2020)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난 시 지역사회의 대피시설 및 장소에 대한 지정 및 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의 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전국 58개 정도 관련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노영희, 노지윤, 2020). 하지만 개별

공공도서관이 대피시설로 지정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사서들은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도서관이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재난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정보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사서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과 관련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논의가 우리보다 오랫동안 폭넓게 이뤄진 미국의 경우 2004, 5년 자연재해를 시작으로 지역의 재해복구 과정에서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이 축적되어왔으나, 주로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과 시설, 장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등 전통적 역할에 초점을 둔 활동이었다. 이에 재난과 관련한 시민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이 미약하고 관련 역할의 비중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Zach, 2011; Zach & Mcknight, 2010). 지역사회 재난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을 축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점검과 반성으로 최근 코로나 19를 비롯한 재난문제와 관련한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Wang & Lund, 2020).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재난에 대한 도서관의 지원 경험이 많지 않고, 재난 관련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본 연구의 사서들은 재난과 관련한 시민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역할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코로나 19 감염병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감염병 관련 정보요구에 대한 사서의 관심과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아울러,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외에도 재난 시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난 경험을 아카이빙하는 역할, 이재민대피소로 찾아가서 도서대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웃리치서비스, 지역사회 재난 지원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지원 역할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재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는 등 지역사회 재난 문제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서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인식에서 사서의 직급과 소속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재난 대응과 지원을 위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관장에 비해 중간관리자와 평사서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의 필요성과 유익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관장에 비해 중간관리자와 평사서의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차이는 도서관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리더십과 민감도에 따른 결과라 짐작된다. 또한 소속도서관 유형에 따라서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가 교육청 소속 사서 및 지자체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들보다 관련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필요성의 측면에서도 지자체 위탁 소속 사서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지자체 소속도서관이 다른 유형의 도서관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과 새로운 역할 발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사서의 인식을 기초로 재난과 관련한 공공도서관 역할 수행을 위해 제언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재난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난과 관련한 세부 역할, 즉 이재민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재난 대피소 및 보호소 역할, 재난 관련 정보서비스, 재난 경험 아카이빙, 아웃리치서비스, 지역사회 지원 역할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서의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지역사회 재난 지원을 위한 출발선이라 할 수 있다. 개별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재난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과 성격,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요구, 재난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정보요구 유형과 특성, 자관의 인력, 시설,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난과 관련한 지역사회 지원과 대응을 위한 도서관역할에 대한 사서의 긍정적인 인식을 기초로 개별 공공도서관에서는 자관의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자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역할과 이용자서비스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재난과 관련한 세부 역할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살펴보았지만, 재난문제를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별 도서관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도서관현장에서의 논의와 시도가 활발해진다면 재난과 관련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 유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재난 관련 도서관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사서의 직급과 소속도서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사서 인식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난과 관련한 역할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거나 도서관역할 및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재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고찰하였지만, 지역사회 문제는 비단 재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이 사회적 기관으로서 재난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상황에 주목하여,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문제와 관련된 정보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와 상황을 살피며, 이러한 문제상황에 도서관의 개입가능성을 탐색하고 관련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사서의 인식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사서의 인식은 이러한 논의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대응과 관련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수준을 조사했지만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해와 관련한 도서관 서비스의 실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관련한 도서관서비스의 유형과

수준에 대한 조사는 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연구설계가 필요하기에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성원 (2020). 감염병 상황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247-267.
- 김포옥 (2006). 한국 공공도서관의 재난대비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85-110. UCI: G704-000226.2006.40.4.011
-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도서관 온라인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185-210. DOI: 10.16981/kliss.51.4.202012.185
- 노영희, 노지운 (2020). 도서관을 대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55-77. DOI: 10.16981/kliss.51.2.202006.55
- 노영희, 장로사 (2020).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공공도서관 사서인식 조사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3), 203-219. DOI: 10.3743/KOSIM.2020.37.3.203
- 박태연, 오효정 (2020). 미디어 이슈를 통해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251-279. DOI: 10.16981/kliss.51.3.202009.251
- 배경재, 정다희 (2021). 공공도서관의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매뉴얼 및 임무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231-249.
-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 경기도사서협의회 (2020). 전국도서관대회 사서릴레이 대토론회 자료집 -재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다.
- 이상백 (2019). 도서관과 기록관의 자연재난대비 계획수립 핵심 요소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101-119. DOI: 10.14699/kbiblia.2019.30.1.101
- 이연옥 (2010).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51-76. DOI: 10.16981/kliss.41.1.201003.51
- 이정수, 김태경, 김보일, 정재희 (2016).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77-100. DOI: 10.4275/KSLIS.2016.50.2.077
- Alajmi, B. (2016). When the Nation is in crisis: libraries respond. Library Management, 37(8/9), 465-481.
- Bishop, B. & Veil, S. (2013). Public libraries as post-crisis information hubs. Public Library Quarterly, 32(1), 33-45. DOI: 10.1080/01616846.2013.760390

- Echezona, R. (2007). The role of libraries in information dissemin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peace, promotion and reconciliation. *African Journal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cience*, 17(2), 143-152.
- Featherstone, R., Lyon, B., & Ruffin, A. (2008). Library roles in disaster response: an oral history project by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96(4), 343-350.
- FEMA (2020). COVID-19 Best Practice Information: Library Support for Communities. Available:  
[https://www.fema.gov/sites/default/files/2020-07/fema\\_covid\\_bp\\_library-support.pdf](https://www.fema.gov/sites/default/files/2020-07/fema_covid_bp_library-support.pdf)
- Green, S. & Teper, T. (2006). The importance of disaster planning for the small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Quarterly*, 25(3-4), 47-59.
- Harris, R., Wathen, N., & Chan, D. (2005). Public library responses to a consumer health inquiry in a public health crisis: the SARS experience in Ontario.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5(2), 147-154.
- Hayes, L. (2002). Coping, view 1: programs laudable. *American Libraries*, 33(8), 33-37.
- Jaeger, T., Langa, L., McClure, C., & Bertot, J. (2006). The 2004 and 2005 gulf coast hurricanes: evolving roles and lessons learned for public libraries in disaster preparedness and community services. *Public Library Quarterly*, 25(3-4), 199-214.
- Shera, J. H. (1970). *Sociological Foundations of Librarianship*. New York: Asia Pub. House.
- Khan, M. (2012). *Disaster Response and Planning for Libraries* (3r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LeBoeuf, M. (2006). Disaster strike, public libraries prevail: the impact of Hurricanes Katrina and Rita on Louisiana Public Libraries. *Louisiana Libraries*, 68(4), 3-7.
- Stewart, A. (2014). When disaster strikes: opportunities for community and institutional renewal at Elliot Lake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Quarterly*, 33(4), 304-329.
- Wall, K. (2006). Lessons learned from Katrina: what really matters in a disaster. *Public Library Quarterly*, 25(3-4), 189-198.
- Wang, T. & Lund, B. (2020). Announcement information provided by United States' public libraries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Public Library Quarterly*, 39(4), 283-294.
- Zach, L. (2011). What do I do in an emergency?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providing information during times of crisis. *Science & Technology Libraries*, 30(4), 404-413.

Zach, L. & Mcknight, M. (2010). Special services in special times: responding to changed information needs during and after community-based disasters. *Public Libraries*, 49(2), 37-4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 Kyung Jae & Chung, Dahee (2021). Analysis of manuals and missions for responding to disasters in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231-249.

Kim, Sungwon (2020).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library service in the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247-267.

Kim, Po-Ok (2006).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plan for the disaster protection in public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4), 85-110. UCI: G704-000226.2006.40.4.011

Lee, Jung-Soo, Kim, Tae-Kyung, Kim, Bo-Il, & Chung, Jae-Hee (2016). Development of a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77-100. DOI: 10.4275/KSLIS.2016.50.2.077

Lee, Sangbaek (2019). The study of key elements to establish natural disaster preparedness plan in libraries and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101-119. DOI: 10.14699/kbiblia.2019.30.1.101

Lee, Yeon-Ok (2010). A study o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ies of North Americ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51-76. DOI: 10.16981/kliss.41.1.201003.51

Noh, Younghee & Chang, Rosa (2020). A study on the librarians'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about the response to the COVID-1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203-219. DOI: 10.3743/KOSIM.2020.37.3.203

Noh, Younghee, Kang, Pil Soo, & Kim, Yoon-Jeong (2020). A study on the activation measures of library's online services to overcome COVID-19.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185-210. DOI: 10.16981/kliss.51.4.202012.185

- Noh, Younghee & Ro, Ji-Yoon (2020). A study on the librarian's perception about the utilization of libraries as evacuation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55-77. DOI: 10.16981/kliss.51.2.202006.55
- Park, Tae-Yeon & Oh, Hyo-Jung (2020). A study on library service in the Post-COVID Era through issues on medi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251-279. DOI: 10.16981/kliss.51.3.202009.251
- Seoul Public Library Association & Gyeonggi Librarians Association (2020). Considering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a disaster situation. *Proceedings of the 2020 National Library Conference Librarian Relay Discussion*.